

#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언론,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몸’\*

- 『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의 매독담론 -

안영희\*\*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매일신보』-건강한 몸과 부인병
- III. 『동아일보』-깨끗한 몸과 화류병
- IV. 『조선일보』-깨끗하고 건강한 몸과 화류병
- 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언론에 나타난 매독담론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차별적인 통치전략을 밝힌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을 보면,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제국일본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민간지 『동아일보』는 여성해방과 조선 하층민과 조선인의 삶에 관한 관심을 잘 반영하며, 여성 인권신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여 남녀에게 차별적인 위생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식민지 언론의 매독담론을 통해, 식민지의 위생정책과 가부장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과 식민지의 위생정책이 각 신문에 어떻게 나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4108)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조교수

나는가? 『매일신보』는 제국 일본, 『동아일보』는 사회적 약자, 『조선일보』는 남녀에게 차별적인 위생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별, 지역, 계층 간에 다르게 적용된 제국주의의 차별적인 통치전략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성병감염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는가? 『매일신보』는 여성의 건강한 몸으로 제국의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태도다. 따라서 유곽을 이용한 남성에게 성병의 책임을 돌리고 여성을 보호하자는 태도다. 『동아일보』는 식민지 서민의 삶에 주목하여 여성해방운동과 공창폐지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여성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가부장제와 상업주의가 결합하여 예방에 목적을 둔 성병기사의 독자는 여성, 치료에 목적을 둔 성병광고의 독자는 남성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 신문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언론에 나타난 매독담론의 전체상이 드러났다.

주제어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언론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일근대신문에 나타난 매독담론의 공시적·통시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일제의 통치담론을 고찰하려고 한다. 개인의 몸을 통제하고 단속한 제국주의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한 국가나 한 신문의 연구로는 차별적인 지배방식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제국의 통치담론, 그리고 식민지에서 왜곡, 변형되어 적용된 통치담론은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해야 그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일본제국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매독담론을 알아보았다.<sup>1)</sup> 이 논문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언론인 『매일신보』·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기사를 분석하여 식민지의 위생정책과 가부장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제국과 식민지 언론의 전체상이 드러날 것이다.

일본의 요시와라유곽(吉原遊廓)은 에도막부 때 운영된 공창이다. 최성기였던 19세기 중반의 요시와라유곽에는 270개의 유곽, 7000명의 유녀, 관련종사자 12,000명이 있었다.<sup>2)</sup> 요시와라 유곽은 1618년에 설립되어 1872년 유녀해방령이 내려지면서 일반적인 사창가로 전락했다. 1956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어 요시와라유곽은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요시와라의 터는 소프랜드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가 즐비한 현대적인 사창가가 되었다.

에도시대에서 메이지시대로 들어서면서 공창제도는 일본제국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공창제도란 국가가 용인하는 성매매시스템으로 제국 일본은 군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유곽을 활용했다. 조선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조약(1876년)은 일본의 식민지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아울러 요시와라유곽은 1876년 부산개항 직후, 조선침략의 초기부터 조선에 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산개항 직후부터 조선에 일본인 유곽업자와 창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본제국의 유

- 
- 1) 일본제국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미 「일본제국주의의 통치전략과 '깨끗하고 건강한 몸'만들기 -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매독담론 -」(『일본어문학』 93, 2021)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일제의 통치전략을 알기 위해서 식민지의 언론도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김미영의 「일제하 『조선일보』 성병관련 담론 연구」가 있으나 한일 비교, 동시대 신문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제국의 차별적인 위생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동시대의 한일신문 비교를 통해 극복할 것이다.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 성병관련 담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29(2), 2006, pp.389-417)
- 2) 宋連玉 「妓生からキーセンへ至る道:植民地主義とセクシュアリティ」 <일본의 국가권력과 성폭력 - '문화'로서의 재현> 발표(한국외국어대학교, 2019.12.12.)

곽과 매독검사는 일본이 점령한 전 지역에 이식되었다. 일본제국은 공창제도를 합법화하고 성매매를 공인하면서 매독검사를 통해 가부장제를 강화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매독관련담론은 조선의 각 신문에 기사화된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 언론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있다. 일본제국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총독부 언론검열기구 등에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을 데려다 놓고 조선을 통치했을 만큼 일제의 언론통제는 주도면밀”<sup>3)</sup>했다.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정무총감은 (총독부) 내부의 총감이고, 『경성일보』 사장은 외부의 총감”<sup>4)</sup>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정무총감은 군사통수권을 제외한 행정 및 사법을 통괄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일본 총독이 『경성일보』를 외부의 총감이라고 한 것은 일제가 식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언론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1운동 이후에 민간지를 허가해준 것도 기관지보다 민간지를 통해 식민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살펴봄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언론의 전모를 알아본다. 일제의 지배전략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인종, 젠더, 계급에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조선의 언론은 성병감염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는가? 둘째, 제국과 식민지의 위생정책이 각 신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sup>5)</sup> 이 과정에서 일제의 차별적

3)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4736.

4) 정진석, 앞의 책, p.4736.

5) 안영희 「한일근대신문의 매독담론과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 - 『요미우리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0, 2019, p.298. 참고. 본 연구는 가야

인 지배방식과 한일근대화과정의 특수성이 밝혀질 것이다.

## II. 『매일신보』-건강한 몸과 부인병

일제강점기 조선 언론은 총독부 기관지와 민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는 일본 제국주의에 영합하여 그 방침에 따라 편파적으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정책을 선전하는 신문의 역할을 했다. 반면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민간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발행을 허용해주었다. 일제의 총독부 기관지보다 민간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홍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통치의 선전홍보기구 역할을 했던 총독부 기관지는 『경성일보』(일본어), 『매일신보』(한글), 『서울프레스』(영어)가 있다. 『경성일보』 『매일신보』가 단순한 언론기관을 넘어서 식민지 통치의 정치적 권력 기구 역할을 했다. 『매일신보』(1910.8.30.-1945.8.15.)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이다. 반일 성향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와는 달리 일본인이 사장을 맡은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통치에 협조적인 관계 일간지였다.<sup>6)</sup>

---

트리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적용하여 인종(일본과 조선), 젠더(여성과 남성), 계급(상류층과 하류층)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일본 제국주의를 살펴본다. 따라서 첫째, 성병감염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는가를 통해 젠더와 가부장제의 문제를 밝힐 수 있다. 둘째, 제국과 식민지의 위생정책을 통해 인종, 계급, 젠더의 문제가 가부장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별적인 일제의 통치전략을 알 수 있다.

6)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기 전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고,

민간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3.1운동 이후, 소위 일본의 문화정치가 실시되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허가되었다. 두 신문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창간된 최초의 한국인 발행주체의 민족언론이었다. 『동아일보』(1920.4.1.-1940.8.10.)<sup>7)</sup>는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이라는 슬로건으로 창간되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이 된 그 해인 1940년 초 일제가 『동아일보』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우려했음을 보여주는 비밀 문건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조선일보』(1920.3.5.-1940.8.10.)는 경제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를 배경으로 창간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1916년 한국 실업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경제 단체였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자본가들에게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일선융화(日鮮融和)’를 도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대표적인 한국인 경제 단체였던 대정실업친목회도 조선총독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8)</sup>

---

태평양 전쟁 중 두 신문이 강제 폐간되면서 1940년부터 또다시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 되었다. 『매일신보(每日申報)』는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경성일보』가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하여 제호에서 ‘대한’을 뺀 뒤 『경성일보』 자매지로 발행을 시작했다. 『경성일보』와의 통합, 분리를 거치며 1937년 이후 제호가 『매일신보(每日新報)』로 변경되고 경영 형태는 독자적인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이때도 주식의 과반수를 조선총독부가 소유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서울신문』으로 변경되었다.

7) 김성수를 대표로 하며 초대 사장은 박영효였고, 초대 주필은 김성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브나로드 운동, 연정회, 신간회 운동 등을 지원하였다.

8) 안종묵 「일제하 민족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화정치 시기의 『조선일보』 · 『동아일보』」 『동서언론』 20, 2006, p.44. 창간 당시에는 대정친목회를 모체로 조진태

일제의 통치전략은 근대국가, 공창제도, 일본군'위안부', 매독검사, 가부장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본제국은 “공창의 등록과 강제 성병검사를 골자로 하는 유럽식 근대 공창제도를 도입하여 1900년에 ‘창기단속규칙’을 제정해 검매(檢儼, 매독검사)제도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성을 관리”<sup>9)</sup>하게 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공창제도를 이식하면서 성병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성병은 시대병으로 인식되면서 각 신문에서 담론화하게 된다. 일제는 일본과 조선, 여성과 남성, 상류층과 하류층에 차별적인 통치전략을 적용하였다. 제국과 식민지의 언론의 매독담론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언론별 주요 매독담론의 특징을 살펴본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언론인 『매일신보』·『동아일보』·『조선일보』의 성병관련담론의 횡수를 파악하고 주요 기사내용을 분석한다.

식민지 언론은 공통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일본 정책의 반영이다. 1927년에 “花柳病豫防法案 委員會서 可決”(『매일신보』), “花柳病豫防法案委員會서 可決(東京)(『동아일보』) “화류병 예방案 위원회 가결. 동경”(『조선일보』) 등과 같이 <화류병예방법안>은 세 신문사에서 공통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성매매업소인 공창과 사창, 유곽과 국민건강에 관한 내용이다. 공창 및 사창의 화류병, 예기·창기·작부의 건강진단 등은 공통으로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독으로

---

사장으로 시작하였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송병준에게 넘어갔다. 1924년에는 일제와 타협적이던 언론과는 달리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띠었다. 이후 계속 경영 악화로 조만식을 거쳐 방응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 후 보수적인 언론인들이 조선일보사를 주도하면서, 보수주의 관점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9) 안영희 「한일근대신문의 매독담론과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 - 『요미우리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0, 201, p.297.

고통받는 개인들이 등장한다. 매독을 비판하여 자살하거나 매독을 고친다고 공동묘지에 시체를 파내거나 하는 등의 기사이다. 그러나 각 언론은 정책과 기사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매일신보』의 매독담론이다.

도표를 통해 살펴본 『매일신보』의 매독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매일신보』(1920.4.1.-1940.8.10.)의 성병관련 담론의 횡수와 기사

년도	총	매독	화류병	임질	부인병	성병	기사내용	기타
1920	3	0	2	1	0	0	화류병 때문에 自棄의 一盃酒, 매독에 걸려 더욱 비판/ 花柳病男子 結婚法禁止案과 治安警察法第五條改定이 이번의회에 제출, 동경신부인회의 활동	화류병 남자 결혼법 금지안
1921	0	0	0	0	0	0	花柳病 박멸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바 영미국과 같이 해야만 되겠다고, 國費施料가 필요 (加藤防疫官談)	
1922	7	5	0	0	2	0	解毒直効는 人肉, 사람고기를 먹으면 매독병이 낫는다고 허황한 미신/ 診斷의 誤謬로 逐出當한 新婦가 醫師를 相對로, 재판소에 소송을 걸어 쟁송, 매독의 진단으로 결국 큰일	미신 오진
1923	2	2	0	0	0	0		
1924	16	4	0	0	12	0	梅毒病者의 투신 자살, 병은 낫지 않고 부채만 많아감으로/ 일반 府民에게 梅毒  혈액검사, 경성부에서 불원간 실시, 유료 무료는 아직 미결정	혈액 검사
1925	9	6	1	0	2	0	大邱師範生花柳病者 퇴학처분사건, 진단 差違로 문제 돌발/ 大同江에 投身 매독을 비판하고	진단

1926	7	1	1	1	4	0		
1927	15	8	5	2	0	0	花柳病豫防法 일본 내지 각처에서는 元旦부터 實施 全國의 藝娼妓十七萬九千人 疑訝한 賣藥도 取締/ 花柳病豫防法案 委員會서 可決	花柳病 豫防法
1928	10	1	6	0	3	0	花柳病에 걸려서 賣淫하면 懲役 花柳病 예방 법안이 새로나 九月一日부터 實施	징역
1929	8	3	4	1	0	0	府民의 二分一은 全部가 不健康! 매독환자가  데일 만었다	
1930	16	4	5	0	6	1		
1931	16	5	5	0	5	1	羅馬를 亡한 花柳病 全南에도 侵入 女子보다 男子의 感染이 多數/ 公私娼이 存續되는 限 花柳病根絶無望 이런 여성들의  건강진단 결과 罹病者가 적지않어	남자 감염 건강 진단
1932	7	4	0	1	2	0	사듯한 봄철은  정신병생기는  새 대부분은  매독으로 인해/ 덧기에도 무서운  선천적  매독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선천성 매독
1933	22	7	6	5	1	3	梅毒患者가 四十六% 女給의 健康狀態	건강 상태
1934	17	2	7	2	4	2		
1935	16	2	6	2	4	2	무서운 花柳病 예, 창기, 작부 등  건강진단 결과 淋疾, 梅毒 等の 順位/ 花柳病고치려 强盜를 犯行/ 花柳病은 亡國惡疾 든 주고 사서 몸 망친다	창기 작부 유녀 건강 진단
1936	24	1	9	1	8	5	全朝鮮 藝娼妓酌婦 花柳病 漸次 增加/ 花柳病媒介하는 接客婦團東協議  유곽창기의  검사의를  소집하고 道保安課에서 協議/ 『식모』의  정조  췌고  화류병까지  선물	유곽 창기 검사의

1937	11	1	8	0	2	0	花柳病豫防은 女子보다 男子 남성측의 부주의가 만타고 籠中鳥들이 呼訴! 三都市의 接客婦 花柳病의 保有率 仁川七% 開城四%京城三% 開城에도 宣傳映畫會 藝娼妓等接客婦爲始 너무나 만혼 花柳病	남성측 부주의
1938	1	0	0	0	0	1	년말년시 연회의 주고받는 술잔에서 결핵, 매독같은 무서운 전염성병균이 움기 쉬워	전염성 병균
1939	19	2	7	1	9	0		
1940	7	1	3	0	2	1	腦梅毒에 新療法-八割을 完治, 副作用 絶對 없다 - 日本醫學의 또한 功績	뇌매독 일본 의학
	233	59	79	17	66	16		

『매일신보』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대변하는 기사로, 식민지 정책의 선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언론에 비해 <부인병>이 두드러지게 많다. 또한 화류병 예방법안, 법률과 재판 등 법률 관련 내용, 건강진단, 유곽과 창기와 관련된 법률 등 정책에 관한 내용도 많다.

다음은 화류병예방법안에 관한 내용이다.

“花柳病男子 結婚法禁止案”(1920), “花柳病 박멸법안을 제정”(1921),  
“일반 府民에게 梅毒 혈액검사”(1924),  
“花柳病豫防法 일본 내지 각처에서는 元旦부터 實施”, “全國의 藝娼妓十七萬九千人 疑訝한 賣藥도 取締”, “花柳病豫防法案 委員會서 可決”(1927)

다음은 성병의 원인을 남자의 책임으로 보는 기사가 일부 보이며 부인을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女子보다 男子의 感染이 多數”, “公私娼이 存續되는 限 花柳病根絶無望”(1931)

花柳病豫防은 女子보다 男子 남성측의 부주의가 많다고 籠中鳥들이 呼訴!  
(1937.3.13.)

다음은 유곽 여성의 성병을 담론화하고 있다.

花柳病은 亡國惡疾 돈 주고 사서 몸 망친다 소화八년 중 유녀들의 이병 통계를 보면 과연 소름이 끼침을 늦긴다 (1935.3.29.)

먼저, 화류병예방법안에 관한 정책으로 “화류병남자 결혼금지안(1920), “화류병 박멸법안의 제정“(1921), “화류병예방법안 위원회서 가결”(1927) 등이 있다. 그다음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감염이 다수”이며, “화류병예방은 여자보다 남성측의 부주의가 많다”는 기사가 나온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을 보호해야 제국의 군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국가적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화류병은 망국악질이고 돈을 쓰고 몸을 망친다”, “일반 서민에게 매독 혈액검사”, “로마를 망하게 한 화류병”, “매독환자가 46% 여급의 건강상태” 등 성병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국가와 성병을 연관시키고 있다. 또한 일반 서민과 여급의 건강상태를 다루며 성병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몸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

이상으로 『매일신보』는 <건강한 몸과 부인병>으로 일본제국의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매일신보』에서는 부인병이 66건으로 『동아일보』의 18건에 비해 매우 많다. 『매일신보』에서는 부인병과 관련하여 모자건강을 중시하며, <건강한 몸>을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부인병을 담론화하면서 국

민건강을 기사화한다. 특히 1930년대부터 부인병과 관련해서 가정과 위생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선천성 매독, 모자 건강 등이 거론된다. 이는 일제가 1928년부터 <화류병예방령>을 시행했으나, 1938년 3월에 <국가총동원법>을 성립시키고 총력전체제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1938년 6월부터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화류병예방령>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개정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sup>10)</sup> 둘째, 매독검사와 국가의 의료정책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화류병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중점을 두고, 건강진단과 혈액검사, 일반인의 매독검사가 주로 기사화된다. 또한 유곽의 예기, 창기, 작부의 매독검사도 자주 거론된다. 이처럼 『매일신보』는 건강진단과 매독검사 등 국가의 의료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셋째, 일본의 위생정책이 곧바로 반영된다. 화류병과 관련하여 국가의 의료정책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즉시 반영된다.

이상으로 『매일신보』는 <건강한 몸과 부인병>이 주요 담론이 된다. 부인의 건강은 자녀의 건강과 직결된다. 제국의 건강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모자건강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제국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고, 부인병은 부인이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제국 군인으로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는 ‘건강한 몸’을 위한 위생정책을 적용하면서, 남성에게는 제국의 군인으로, 여성에게는 제국의 군인을 생산하는 어머니로서의 건강한 몸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모자건강을 중시하는 부인병이 담론화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매일신보』는 <건강한 몸과 부인병>이라는 담론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영합하여 총독부 기관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10) 박정애 「조선총독부의 성병예방정책과 <화류병예방령>」 『사립』 55, 2016, p.315.

### III. 『동아일보』의 매독담론-깨끗한 몸과 화류병

〈표 2〉 『동아일보』(1920.4.1.-1940.8.10.)의 성병관련 담론의 횡수와 기사

년도	총	매독	화류병	임질	부인병	성병	기사내용	기타
1920	6	0	6	0	0	0	花柳病者の 婚姻을 禁할일(女醫 許英肅寄書)/ 花柳病이 增加, 화류병이 늘어감은 풍기가 문란한 증거	화류병자 혼인제한
1921	4	0	3	1	0	0	社會의 道德의 基礎, 我青年界의 腐敗를 慨歎, 花柳病毒의 戰慄할 影響	
1922	5	2	2	1	0	0	花柳病의 恐怖로 自殺코자, 종기난 어린자식 까지 죽이라 한 사건/ 梅毒을 고치려고 水銀과 비상을 석거 피우고 水銀中毒으로 死亡, 병자의 주의할 일/	자살 수은
1923	5	2	3	0	0	0	勞農露西亞의 新婚姻法令에는  위선 신랑신부의 건강을 진단, 결혼 후 화류병에 걸리면 징역	징역
1924	3	2	0	1	0	0	梅毒血液檢査, 不遠間에 實行	매독혈청 검사
1925	5	4	0	1	0	0	骸骨을 盜掘燒食, 매독을 곳치려다 경찰신세	해골 도굴
1926	10	1	5	2	0	2	花柳病에 精神病까지, 외모는 녀학생, 방탕한 녀자의 말로/ 賣春巷에 朔風, 화류병 가지고 매음을 하면 삼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 공창 사창과 매독보군자	방탕 공창사창
1927	12	0	8	0	4	0	花柳病豫防法案委員會서 可決(東京)/ 十名中의 一名은 花柳病있는 娼妓, 경성의 창기 삼천 삼백명중 사백명이 화류병을 가지어	화류병예방 법안 가결
1928	5	3	2	0	0	0	健康診斷에 나타난 藝娼妓의 花柳病, 매독 림질 연감등의 모든 병, 一月末現在의 人員數	예창기
1929	15	1	2	10	1	1	男妹毒殺을 公判에서 否認, 간부와 공모로 독약했다는 사건 범인은 경찰고문이라고 주장해, 公州法院에 怪青年	

1930	6	2	3	1	0	0	松宮彌平 傳染防止媒介나(花柳病豫防問題와 公娼)	
1931	7	0	2	1	1	3	接客職業女子 花柳病 一割餘	接客직업 여자
1932	9	3	3	1	1	1	劇藥治療로 美女를 毒殺 加짜 의사가 釜山 朴達伊女人, 水銀劑로 梅毒 치료타	가짜의사
1933	19	2	5	0	6	6	飲食店 女給 殆半이 梅毒(新義州)	음식업 여급
1934	15	4	2	0	5	4	女性解放의 烽火! 血戰苦鬪半世紀에 公娼廢止에 凱旋, 東京六處의 遊廓全部를 解消, 進一步로	여성해방
1935	24	2	13	3	5	1	種族改良의 獅子吼 今夜의 優生大講演; 優生과 花柳病(鄭求忠)/	종족개량
1936	4	1	1	0	1	1	花柳病悲觀 마침내 飲毒	음독자살
1937	9	1	4	0	1	3	梅毒을 悲觀코 縊首自殺(仁川)	자살
1938	19	1	5	2	0	11	繩以賣買獨占은 不可 「反對의 烽火」 再燃 獨占事業의 弊害를 指摘해 元山商協陳情活動(元山)	
1939	24	2	8	0	8	6	전 인류를 좀먹어가는 화류병의 박멸책; 자랑거리 못되는 조선의 통계표 각처에 치료소를 둘 예정/ 花柳病을 退治코져接客業者健康診斷(鎭南浦)	화류병 박 멸책
1940	6	0	3	0	2	1	花柳病豫防에 基本資料蒐集	
	212	33	80	24	18	40		

『동아일보』는 <깨끗한 몸과 화류병>이 키워드가 되며 식민지 조선 서민과 약자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여성의 깨끗한 몸을 지키기 위해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성병을 충칭하는 개념은 화류병이었다. 당시 한반도에서 성병은 전염병의 대명사로 화류

병으로 일컬어졌다. 부인병이 제국의 군인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화류병은 여성의 건강 및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깨끗한 몸과 화류병은 일제의 욕망보다 조선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미영은 질환으로서의 성병을 “조선에 공창제를 도입한 일본 제국주의와 한반도 내부의 가부장적 인습이 개인의 육체에 새긴 욕망의 변질과정에서 생긴 파생물이다. 성병의 치료는 근대적 과학과 문명의 힘이 개체의 몸에 체험적으로 각인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성병과 그 치료를 둘러싼 담론들은 근대화화 식민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적 질곡에 점점에 위치하는, 가장 직설적이고도 일상적인 성별 인식의 이해를 반영한다.”<sup>11)</sup> 라고 했다.

『동아일보』에서는 화류병 82건, 매독 39건, 임질 24건, 부인병 18건이다. 화류병이 부인병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화류병은 결혼문제, 풍기문란과 도덕성과 관련한 담론이 많으며 서민의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매독과 관련해서는 매독을 고치려다 수은중독에 걸리거나 인육을 먹는 미신 등과 관련된 기사가 많다. 큰 틀에서 화류병과 부인병이 국민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화류병은 깨끗하고 청결한 몸으로 여성 개인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부인병은 아이와 관련한 기사가 많으며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낳아 건강한 군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국가 담론과 연관되어 있다.

『동아일보』의 매독담론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11)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 성병관련 담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29(2), 2006, pp.390-393.

“花柳病者の 婚姻을 禁할일(女醫 許英肅寄書)”(1920)

“女性解放의 烽火! 血戰苦鬪半世紀에 公娼廢止에 凱旋, 東京六處의 遊廓 全部를 解消, 進一步로”(1934)

다음은 가짜의사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고 있다.

“劇藥治療로 美女를 毒殺 加假 의사가 釜山”(1932) “एं터리 醫員이 生사 람 잡아 화류병 고친다고”(1935)

『동아일보』에는 여의사 허영숙이 화류병자의 혼인을 금한다는 기사와 “여성해방의 봉화, 혈전고투 반세기에 공창금지에 개선” 등 여성인권과 관련된 기사가 많다. 그리고 화류병과 관련해 가짜의사에 주의하라는 기사가 있다. 또한 “화류병의 공포로 자살코자, 종기난 어린자식까지 죽이라 한 사건”, “노농러시아의 신흥인법령에는 위선 신랑신부의 건강을 진단, 결혼 후 화류병에 걸리면 징역”, “공창 사창 매독보균자” 등 일반 서민의 삶에 관한 기사가 많다. 이러한 논조는 193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 “우생과 화류병”, “전 인류를 좀먹어가는 화류병의 박멸책” 등 성병과 국가를 연관시키며 제국의 정책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24년 이광수가 쓴 「민족적 경륜」이라는 사설을 기점으로 일제와 비투쟁적, 타협적인 논조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동아일보』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하지만 일제가 일제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조로 조선 민중들을 선동하던 지하신문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민족언론을 이용하여 한국인은 한국인의 손으로 지배하도록 한 고등술책이 숨어 있었다.<sup>12)</sup> 민간지는

12) 안종목, 앞의 논문, p.42. 참고(최민지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재인용.

일제의 제국주의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에 부응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동아일보』의 매독담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서민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서민의 삶과 실생활에 밀착한 화류병이 가장 많이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동아일보』는 다른 신문과는 달리 유일하게 토막민<sup>13)</sup>에 주목하고 있으며, 예기·창기 문체도 많이 다룬다. 일반인들은 화류병을 일반 서민들과 관련이 깊은 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화류병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의 삶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기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동아일보』는 화류병을 담론화하면서 조선 하층민들의 삶을 비중 있게 다룬다. 둘째, 여성해방운동과 공창 폐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일보』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해방과 조선의 근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종족문제와 깨끗한 몸, 우생문제가 1930년대 중후반에 많이 등장한다. 1935년부터는 종족문제와 우생문제 등 일본 제국주의의 정책을 반영한다. 『동아일보』는 <깨끗한 몸과 화류병>을 주요 담론으로 하며 일반 서민과 여성에게 가장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한 몸>은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입장이며, 화류병 담론은 당시 서민과 여성의 문제를 담론화하여 해결하자는 태도다. 따라서 가장 식민지 서민과 여성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으며, 여성해방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결국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편입하게 된다.

13) 흙으로 만든 움집에서 산 일종의 도시빈민을 말한다.

## IV. 『조선일보』의 매독담론-깨끗하고 건강한 몸과 화류병

〈표 3〉 『조선일보』 1920.4.1.-1940.8.10.)의 성병관련 담론의 횡수와 기사<sup>14)</sup>

년도	총	매독	화류병	임질	부인병	성병	기사내용	기타
1920	0	0	0	0	0	0		
1921	4	2	2	0	0	0	권총으로 殺妻. 매독환자라고 이혼코자 한 처를 쏘았다. 노골적 개방된 위생 박람회. 남녀의 음부를 만들어 화류병 예방. 동경서 개최	위생 박람회
1922	1	1	0	0	0	0	남녀의 매독병	
1923	6	2	2	1	0	1	주의할 신정의 花柳病. 매독에 걸린자가 12명이요 임질환자는 1백여 명이나 된다	
1924	4	3	1	0	0	0	불량청년 검거. 어린 아이를 피어서 매독까지 옮겨주어	부인병원 등장기생
1925	8	4	2	0	2	0	매독약 발명자 서거 창기 자살미수.매독을 비판하야 /수은중독으로 소부 1명 참사. 화류병 고치다가	수은중독 창기
1926	13	4	4	2	1	2	남자방탕과 가정비극. 남편으로부터 전염된 매독 비관음독한 艾妻. 몸쓸병은 점점 더해가고 치료에 쓸 약값도 없어서. 양양군 손양면	화류병예방법
1927	12	2	5	1	0	4	매독 전염시켜주고. 아내를 팔아 먹은자 화류병 예방案 위원회 가결. 동경	화류병예방법안 가결
1928	9	1	5	3	0	0	藝娼妓 9만명중 화류병 3천7백/병중에도 무서운 병. 花柳病 근절책	예기창기
1929	12	1	5	0	5	1	화류병들린 남편을 모살미수한 여자. 징역 3년 구형 /박람회 상경객 통하여 전조선에 퍼지는 화류병. 公私娼에서 얻어 가져가는 무서운 선물	공창사창

14)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의 횡수와 기사는 안영희의 선행논문(「한일근대신문의 매독담론과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 - 『요미우리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0(2019.8), pp.311-312.)에서 인용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언론의 전체적인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도표를 다시 한번 더 인용한다.

1930	6	4	1	0	0	1	무서운 매독은 눈도 어렵게 한다	눈
1931	17	6	5	2	2	2	매독진단법과. 『왓세루만』 반응성적 /부인. 매독으로 되는 홍채염의 증세 (하).	홍채염
1932	31	3	19	4	4	1	가정부인들은 남편의 화류병을 미리 예방하여 큰해를 피하십시오 (6)/ 여러가지 화류병은 가정과 사회를 망칩니다 (7)	가정부인
1933	27	10	5	1	8	3	[가정아동] 전염키 쉬운 여러가지 병 (4). 특히 매독에 대하여 /사랑을 찾아서. 아이 없는 설움을 누구에게 하소연 하리요. 모두가 부인 병이 원인, 어찌하면 집에서 고칠 수 있나	전염
1934	21	8	3	2	8	0	수은 증기에 중독 일가족 3명 참사. 악성 매독 치료중 기화	수은증기
1935	15	4	2	2	3	4	桃色街(도색가)에 가짜 의사. 화류병 전문으로 혈값 주사행각. 병원 小使(소사)의 건방진 부업	가짜의사
1936	17	1	9	0	2	5	과학. 현대와 화류병 (6)	과학
1937	69	12	1	20	32	4	매독은 자지손손에게 유전한다 / 어찌 임질은 먹는약으로 낫지 않는가	불임증과 유산
1938	44	6	3	7	22	6	애기를 밴 동안. 병이 생기면 어찌될까. 임신과 구실의 관계. 모체에 화류병 있으면. 태아와 치아의 관계. 태교의 과학적 근거	남편의 매독이 부인에게 전염
1939	35	8	7	10	8	2	가정의학. 어머니의 매독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일가를 망치는 매독을 고치라	청결한 몸
1940	20	1	6	2	5	6	망국 병인 화류병 당국, 각도에 기본 자료의 축집 보고를 중용 예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수은중독
	<b>371</b>	<b>83</b>	<b>87</b>	<b>57</b>	<b>102</b>	<b>42</b>		

『조선일보』의 성병관련 담론의 횡수와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병관련기사는 『조선일보』 371건, 『매일신보』 233건, 『동아일보』 212건이다. 성병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의 기사가 가장 많으며 상업자본주의와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론과 상업자본주의를 보면, 『조선일보』가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도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인 경제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가 주체가 되어 창간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민족의 절박한 문제인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조선일보』에서는 성병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가정부인들은 남편의 화류병을 미리 예방하여 큰해를 피하십시오.”(1932)

“매독은 자자손손에게 유전한다.”(1937)

“애기를 뱀 동안. 병이 생기면 어찌될까.”, “모체에 화류병 있으면”(1938)

“어머니의 매독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일가를 망치는 매독을 고치라.”(1939)

『조선일보』에서는 부인병이 102건, 화류병이 87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조선일보』는 <깨끗한 몸>과 <건강한 몸>을 키워드로 하고 있고 명확한 입장이 없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제에 영합한 것과 관련이 있다. 첫째, 국가정책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매독과 관련한 가정사를 비롯하여, 남편한테 옮은 매독으로 자살하거나 살인을 미수한 여자, 매독을 비판한 창기 자살 등을 다루고 있다. 국가의 의료정책보다는 가정사와 개인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둘째, 매독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1932년부터는 가정부인을 겨냥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조선일보』는 어머니의 매독은 자손에게 유전이 되니 가정부인이 미리 화류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기사가 많다. 또한 임신과 태아에게 화류병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 등을 기사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정책보다 주로 개인의 문제를 다루며 매독약 광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성병과 관련해 국가정책보다 가정의 문제나 창기 등 개인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1932년부터는 주로 가정부인에 초점을 두고 가정부인이 성병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에 비해 매독약 기사와

광고가 가장 많다.

김미영은 “『조선일보』의 성병담론은 암암리에 조선의 기층여성을 전 통과 불결, 성병과 밀접한 존재로 이미지를 묶어감으로써, 성병의 확산과 치료의 책임을 여성에게 은연중 전가하고, 기층여성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서구적 의학의 외피를 쓴 제국주의와 모성론에 뿌리를 둔 가부장제적 의식의 합작이 빚어낸 결과”<sup>15)</sup>라고 하고 있다. 또한 김은정은 “남성중심적으로 주도되는 사회담론이 성병예방보다는 성병의 위험을 경고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자본이 파고들어 성병치료제의 효능을 열심히 광고했다.”<sup>16)</sup>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창간했기 때문에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매독약 광고를 많이 했다. 따라서 남성에게는 광고를 통해 성병 치료에 중점을 두고, 여성에게는 기사를 통해 성병 예방에 목적을 둔 차별적인 매독담론을 적용한다.

이상으로 언론별 주요 매독담론을 보면, 조선에서는 각 신문의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화류병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조선에서는 화류병이 시대적 담론이 되고 있다. 조선에서 화류병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부인병을 시대적 담론으로 하는 일본보다는 일반 서민의 삶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제국의 군인을 양성하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부인병을 시대적 담론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을 대변하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서는 부인병이 다른 신문에 비해 매우 많이 나타난다. 주로 부인병은

15) 김미영, 앞의 논문, p.398.

16)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 『민족문화사연구』 49, 2012, pp.303-312.

여성의 건강과 모자건강에 대해 기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일신보』의 부인병담론에는 <건강한 몸>으로 제국 군인을 생산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깨끗한 몸>과 화류병을 담론화하며, 식민지 조선 서민과 약자의 처지를 대변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각 언론의 남녀평등에 대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보』는 제국의 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성병의 근원지를 유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창기와 유녀를 성병의 근원지로 보고 이를 이용한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동아일보』는 성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자는 입장이며, 여성해방과 여성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뚜렷한 견해가 없으며, 성병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제국과 식민지 언론의 매독담론을 비교한 결과, 제국의 언론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에서 고찰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 언론의 매독담론은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메이지 시대는 <매독과 깨끗한 몸>, 다이쇼시대는 <화류병과 깨끗한 몸>, 쇼와전기에는 <부인병과 건강한 몸>이 시대적 담론이 된다. 메이지, 다이쇼 시대에 제국 언론은 <깨끗한 몸>으로 청결함을 강조했으나 쇼와전기가 되면 전시 체제하에서 <건강한 몸>으로 국민 체력관리를 강조한다.<sup>17)</sup> 차이점은 제국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은 일반 서민의 처지에서 성병의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병으로부터 여성을 보

17) 안영희,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전략과 ‘깨끗하고 건강한 몸’ 만들기 -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의 매독담론 - 」(『일본어문학』 93, 2021, p.192.

호하자는 태도다. 『아사히신문』은 제국 일본의 위생정책을 잘 반영하고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있으며 성병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식민지의 언론별 특징을 보면, 『매일신보』는 <건강한 몸과 부인병>, 『동아일보』는 <깨끗한 몸과 화류병>, 『조선일보』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과 화류병>이 된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제국 일본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민간지 『동아일보』는 여성해방과 조선 하층민의 일상을 잘 반영하며, 여성 인권신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뚜렷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여 남녀에게 차별적인 위생정책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상 제국과 식민지 언론을 통해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과 식민지 언론의 매독담론에 나타난 일본 제국주의의 차별적인 통치전략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언론검열기구를 만들어 제국과 식민지를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조선의 언론은 언론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일신문에 나타난 매독담론의 공시적·통시적인 비교를 통해, 제국과 식민지, 남성과 여성, 상류층과 하류층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일본 제국주의 통치전략의 전모를 알 수 있다.

둘째, 각 언론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차이와 근대성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 제국의 식민지 언론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차이, 동시대의 정치적 성향, 창간주체, 독자층이 상이한 언론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고찰은 일본과 조선의 근대성 여부에 대한 파악과도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화과정에서 가부장제와 상업자본주의가 끼친 영향을 알 수 있었다. 정론 위주의 대신문(大新聞)에 비해 오락 위주의 성격을 특징으로 삼은 소신문(小新聞)인 『요미우리신문』 『아사히

신문』은 대중적 신문의 원류였다. 일본 근대화과정에서 대신문과 소신문의 이중구조는 사라지고 양쪽의 모습이 합성된 대중지의 모습을 띠게 된다. 소신문은 근대초기부터 상업적 신문을 자칭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신문도 초기부터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와 상업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었다.

## V. 나오는 말

이상으로 식민지 언론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과 식민지의 위생정책이 각 신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매일신보』는 제국 일본, 『동아일보』는 사회적 약자, 『조선일보』는 남녀에게 차별적인 위생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별, 지역, 계층 간에 다르게 적용된 제국주의의 차별적인 통치전략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매일신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성병감염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고 있는가? 『매일신보』는 여성의 건강한 몸으로 제국의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태도다. 따라서 유곽을 이용한 남성에게 성병의 책임을 돌리고 여성을 보호하자는 태도다. 『동아일보』는 식민지 서민의 삶에 주목하여 여성해방운동과 공창폐지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여성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가부장제와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성병기사의 독자는 예방에 목적을 둔 여성, 성병광고의 독자는 치료에 목적을 둔 남성이라는 차별적인 시선을 적용한다.

제국의 언론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과 식민지의 언론 『매일신

보』·『동아일보』·『조선일보』의 매독담론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국의 언론은 메이지·다이쇼시대에 <깨끗한 몸>으로 청결함을 강조했으나 쇼와전기가 되면 전시체제 아래에서 <건강한 몸>으로 국민체력관리를 강조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반 서민의 처지에서 성병의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제국 일본의 위생정책을 잘 반영하고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성병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식민지 조선의 언론을 보면,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일본 제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민간지 『동아일보』는 여성해방과 조선 하층민과 조선인의 삶에 관한 관심을 잘 반영하며, 여성 인권신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상업자본주의와 결탁하여 남녀에게 차별적인 위생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의 사항에 근거하여 제국과 식민지 언론에 나타난 매독담론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차별적인 통치전략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과 조선의 근대화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참고문헌】

- 『매일신보』, (1910.8. 30.창간-1945.8.15.폐간)  
『동아일보』, (1920.4.1.창간-1940.8.10.폐간)  
『조선일보』, (1920.3.5.창간-1940.8.10.폐간)  
『讀賣新聞』, (1900.1.1.-1945.8.15)  
『朝日新聞』, (1900.1.1.-1945.8.15.)
- 김미영, 「일제하 『조선일보』 성병관련 담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29(2), 2006, pp.389-417.  
김은정, 「일제강점기 위생담론과 화류병 - 화류병 치료제 광고를 중심으로 -」 『민족  
문화사연구』 49, 2012, pp.303-312.  
박정애, 「조선총독부의 성병예방정책과 <화류병예방령>」 『사림』 55, 2016, pp.299~  
326.  
宋連玉, 「妓生からキーセンへ至る道; 植民地主義とセクシュアリティー」 <일본의  
국가권력과 성폭력 - '문화'로서의 재현> 발표(한국외국어대학교, 2019.12.12.)  
안종묵, 「일제하 민족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문화정치 시기의 『조선일보』·『동아  
일보』」 『동서언로(東西言路)』 20, 2006, pp.33~61.  
안영희, 「한일근대신문의 매독담론과 제국과 식민지의 근대 - 『요미우리신문』과 『조  
선일보』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0, 2019, pp.311-312.  
\_\_\_\_\_,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전략과 '깨끗하고 건강한 몸'만들기 - 『요미우리신문』  
과 『아사히신문』의 매독담론 -」(『일본어문학』 93, 2021.)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p.473.

Abstract

Japanese Imperialism, Colonial Media, and 'Clean and Healthy Body'

- Discourse on Syphilis in 『Maeil Shinbo』, 『Dong-A Ilbo』 and 『Chosun Ilbo』 -

An, Young-hee

This study reveals the differential governance strategy of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the discourse on syphilis that appeared in the colonial media. If you examine the media in colonial Joseon, 『Maeil Shinbo』, the newspaper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faithfully reflects the position of imperial Japan. The private magazine 『Dong-A Ilbo』 reflects the interest in women's liberation and the lives of the lower classes and Koreans in the Joseon Dynasty, and directs much effort into promoting women's human rights. Meanwhile, 『Chosun Ilbo』 is applying discriminatory hygiene policies to men and women in collusion with commercial capitalism.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olony's hygiene policy and patriarchy through the discourse on syphilis in the colonial media are as follow. First, how are the sanitary policies of empires and colonies appearing in each newspaper? 『Maeil Shinbo』 is imperial Japan, 『Dong-A Ilbo』 i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Chosun Ilbo』 has discriminatory hygiene policies applied to men and women.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know the differential governance strategy of imperialism applied differently among genders, regions, and classes.

Second, who do the 『Maeil Shinbo』, 『Dong-A Ilbo』 and 『Chosun Ilbo』 assume as the subject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Maeil Shinbo』 is an attitude that women should train the soldiers of the Empire with a healthy body. Therefore, it is an attitude to blame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on the men who use the yuyu and protect women.

『Dong-A Ilbo』 devotes close attention to women's human rights issues by actively reporting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the abolition of communism, directing attention to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in the colony. Meanwhile, 『Chosun Ilbo』 is combined with patriarchy and commercialism, applying a discriminatory view that the readers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rticles are women and the readers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advertisements are men. Through this, we can determine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in each newspaper. This study reveals the overall picture of the discourse on syphilis in the colonial media.

**Key Words** : 『Maeil Shinbo』, 『Dong-A Ilbo』, 『Chosun Ilbo』, Japanese Imperialism, Colonial Media

안영희

소속 :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 교수

전자우편 : anyounghee21@kmu.ac.kr

이 논문은 2021년 11월 30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